

##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중국에서는 2008년의 시짱(西藏, 티벳), 2009년의 신장(新疆) 지역 등의 소수민족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대응 또한 매우 강경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의 원인을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인론은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구조 원인과 국내개혁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에서부터 기인하는 원인에 대한 외인론적 원인은 국제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은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말살정책에서부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지배민족에 흡수시키는 동화정책,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융화정책 그리고 각 민족들의 합의하에 연방체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화' 내지 '자치'를 강조하는 한 방향과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하는 다른 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융화와 통합의 정책방향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는데 민족융화 정책 시기(1949-1957), 민족동화 정책 시기(1958-1976), 민족융화 정책 시기(1977-1995), 민족동화/융화 양면 정책 시기(1996-현재)로 나눌 수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관련 분쟁에 대해 양면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물리적인 독립 및 분리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히 봉쇄하되, 순응자 및 민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융화정책을 펴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들어가며
-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분쟁 발생 원인
  - 가.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 나. 중국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
- 3.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 가. 중국 정부 대응의 특징
  - 나. 향후 전망
- 4. 결론
  - 가. 중국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
  - 나.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한반도에의 함의

1. 들어가며

- 현재 중국에서는 2008년의 시짱(西藏, 티벳), 2009년의 신장(新疆) 지역 등의 소수민족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주요한 소수민족 분쟁으로는 1959년 시짱 독립 운동, 1989년 5월 우루무치 소요 사건, 1996년 우루무치 테러 사건, 1997년 베이징 시단 폭발사건, 2008년 3·14 시짱 사건, 2008년 중국 남방항공 CZ6901 폭파기도 사건, 2009년 7·5 우루무치 사건 등이 있음. <표 1> 참조.

[표 1] 중국 주요 소수민족 분쟁 상황

시기(년)	관련 민족	내용	비고
1959	짱	독립 시위	달라이 라마 인도 망명, 자치구
1980	위구르	독립 시위	
1989	짱	독립 시위	달라이 라마 노벨 평화상 수상, 자치구
1989	위구르	독립 시위	자치구
1993	짱	독립 시위	자치구
1996	짱	폭탄 테러	자치구
1996	위구르	폭탄 테러	자치구
1996	위구르	대인 테러	자치구
1997	위구르	폭탄 테러	베이징
2007	위구르	테러훈련기지 공격	2007
2008	위구르	테러분자 사살	자치구
2008	위구르	폭탄 테러	상하이
2008	위구르	폭탄 테러	쿤밍
2008	짱	독립 시위	자치구
2009	위구르	독립 시위	자치구

-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대응 또한 매우 강경한 상황임
  - 일례로 2007년 1월에 중국 공안이 파미르고원 산악지대에서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테러훈련기지 급습해 테러분자

18명 사살하고 17명 체포하기도 함

-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에 대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소수 민족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이 현황과 당국의 정책이라는 '내인(內因)론'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 '외인(外因)론'의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이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를 살펴봄
  -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민족 관련 분쟁이란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폭력사태로 발전한 것임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분쟁 발생 원인

가.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sup>1)</sup>

- 중국 소수민족은 2000년 현재 1억 6백 43만 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8.41%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표 2> 참조.

[표 2] 중국 소수 민족의 인구 수 변화

조사년도(년)	인구수(만명)	전체에서의 비중(%)
1953	3532	6.06
1964	4002	5.76
1985	6730	6.68
2000	10643	8.41

- 중국에는 현재 모두 55개 소수민족이 존재함
  - 전체 소수민족의 약 70%가 서부의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함
  - 전체 소수민족의 약 60%가 국경 인접 성, 자치구에 거주함

중국 소수민족은 2000년 현재 1억 6백 43만 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8.41%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소수민족을 중국에서  
낙후지역에 분포한 관계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55개 소수민족 중 1백만 명 이상의 인구인 민족은 총 18개임. <표 3> 참조.

[표 3] 인구 1백만 이상 중국 소수민족 현황

시기(년)	민족명	거주지역	인구수(명)
1	좡(壯)	광시(廣西), 윈난(雲南), 광둥(廣東)	16,178,811
2	만(滿)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네이멍구(內蒙古), 베이징(北京)	10,682,262
3	후이(回)	닝샤(寧夏), 간쑤(甘肅), 허난(河南),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윈난, 허베이, 산둥(山東), 안후이(安徽), 랴오닝, 베이징, 네이멍구, 톈진(天津), 헤이룽장, 산시(陝西), 구이저우(貴州), 지린, 장쑤(江蘇), 쓰촨(四川)	9,816,805
4	마오(苗)	구이저우, 후난(湖南), 윈난, 광시(廣西), 충칭(重慶), 후베이(湖北), 쓰촨	8,940,116
5	웨이우얼(維吾爾)	신장	8,399,393
6	투자(土家)	후난(湖南), 후베이, 충칭, 구이저우	8,028,133
7	이(彝)	윈난, 쓰촨, 구이저우	7,762,272
8	멍구(蒙古)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허베이, 헤이룽장, 신장	5,813,947
9	짱(藏)	시짱(西藏), 쓰촨, 칭하이, 간쑤(甘肅), 윈난	5,416,021
10	부이(布衣)	구이저우	2,971,460
11	둥(侗)	구이저우, 후난, 광시	2,960,293
12	야오(瑤)	광시, 후난, 윈난, 광둥	2,637,421
13	차오셴(朝鮮)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1,923,842
14	바이(白)	윈난, 구이저우, 후난	1,858,063
15	하니(哈尼)	윈난	1,439,673
16	하사카(哈薩克)	신장	1,250,458
17	리(黎)	하이난(海南)	1,247,814
18	다이(傣)	윈난	1,158,989

○ 소수민족은 중국에서 낙후지역에 분포한 관계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시짱과 신장 지역은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액이 각각 342.19와 3523.16억 위안으로 전체 31개 성, 자치구 중 31위와 26위를 차지함<sup>2)</sup>

나. 중국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

○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의 원인을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내인론<sup>3)</sup>

○ 내인론은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을 가리킴.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1) 역사 및 구조적 원인

○ 이른바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는 민족 및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농경민족과 오랜 기간 갈등과 충돌을 빚어온 유목민족 출신의 소수민족들은 한때 중국을 위협하는 등 협력 보다는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지배집단인 한족과 소수민족 양측 모두는 서로에 대해 일정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조적으로는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과 정체성이 현저한 시짱과 신장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한족과의 이질성이 강함

○ 시짱의 짱족은 대부분 불교신자들이고 2000년 기준으로 약 92.8%가 이들이 차지하고 있음

이른바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는 민족 및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

구조적으로는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과 일체성이 현저한 시짱과 신장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한족과의 이질성이 강함

- 신장의 위구르족은 인종적으로 터키-이란계이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임
- 2) 국내 개혁정책의 영향
  - 전반적으로 중국의 국가통합의 기제와 수단이 약화되었음
  -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약화 내지 와해로 인해 통합보다는 분리 내지 자치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구조적 제어 기제와 수단이 현저히 약화됨
  - 개혁정책으로 인해 지역 분권화와 더불어 연해지역 우선 발전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중국내 소수민족 주요 거주지역인 서부지역의 저발전 상태가 출현했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 (2) 외인론
  - 상술한 내인론에 근거한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배경적 차원에서 그 설득력을 가짐
  - 앞에서 설명한 내인론적인 원인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왜 과연 특정 소수민족의 독립 기도 내지 운동이 더 활발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내인론과 더불어 외부 환경에서부터 기인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주요 외인론적 원인은 다음과 같음
- 1) 국제환경적 원인
  - 냉전종식 후 국제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통신 혁명 등으로 인한 전통적 국민국가 체제의 약화
  - 냉전 종식과 더불어 발생한 세계 각 지역에서의 민족분규와 종교

갈등의 급증

- 구 소련 연방의 해체로 인한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신생독립국의 출현에 중국내의 소수민족들이 고무되는 현상이 나타남
- 2) 조직적 원인
  - 중국 외부에 소수민족과 관련한 조직의 존재 여부
    - 중국 외부에 종교 또는 종족적 차원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조직이 존재할 경우 해당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실례로, 시짱의 경우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성립된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 1989년 달라이 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시짱 문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시짱 문제를 대표적인 중국 소수문제 분쟁으로 세간에 인식시킴
  - 신장의 경우에도, 1991년 말 구 소련 연방 붕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위구르 족과 같은 터키계 이슬람 민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동일 민족 세력과의 연대는 이 지역 분리운동에 물질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내 소수 민족과 동일 정체성 국가의 존재 뿐만 아니라 동일 정체성 국제 무장 조직의 존재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물질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 실례로 1990년대에 결성된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ETIM), 동투르크스탄 해방기구(ETLO)등 조직은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과 이미 오랫동안 조직적 연계를 맺어왔음

구 소련 연방의 해체로 인한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신생독립국의 출현에 중국내의 소수민족들이 고무되는 현상이 나타남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화' 내지 '자치'를 강조하는 방향과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하는 다른 한 방향으로 구성

- 2009년 발생한 7·5 우루무치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이슬람 무장조직인 알 카에다 역시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나섬<sup>4)</sup>

### 3.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 가. 중국 정부 대응의 특징

- (1)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변화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민족평등, 민족구역자치, 분리불가, 통일전선의 원칙으로 구성됨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현재 네이멍구, 신장, 시짱, 광시, 닝샤 등 5개의 성급 자치구를 비롯 차오셴족 자치구를 비롯한 30여개의 자치주, 1,300여개의 민족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화' 내지 '자치'를 강조하는 방향과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하는 다른 한 방향으로 구성됨<sup>5)</sup>
-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현존 소수민족 정책 중 중간 범위의 두 개념을 조합한 것이라고 판단됨
-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은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말살정책에서부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지배민족에 흡수시키는 동화정책,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융화정책 그리고 각 민족들의 합의하에 연방체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소수민족정책의 유형

	수단의 폭력성	
	고	저
소수민족 정체성 인정여부	고	말살
	저	동화
		융화
		다원주의

자료출처: 박병광,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p. 426의 내용을 필자가 수정함

- 일견 상호 대립되는 개념들의 조합으로 보이지만 정체성과 폭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어느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정책의 성격이 변화함
  - 융화 내지 자치를 강조할 때는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이 사용되며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할 때는 상대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됨
- 이를 시기별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sup>6)</sup>
  - 1) 민족융화 정책 시기(1949-1957)
    - 건국 초기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전체 국토의 60%에 달하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영토적 통합이었음
  - 따라서 소수민족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민족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함
  -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소수민족간부 양성정책, 차별적 토지개혁, 민족구역자치정책 등이 있음

정체성과 폭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어느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정책의 성격이 변화함

대약진운동 시기

'민족융합론'이 제기되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론'이 제기됨

- 2) 민족동화 정책 시기(1958-1976)
  -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국내정책과 중-인, 중-소 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지역에 대한 정치 및 사상적 통합의 필요성 등으로 소수민족 정책 역시 동화와 통합을 중시하는 좌편향을 띄기 시작함
  - 대약진 운동 시기 '민족융합론'이 제기되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론'이 제기됨
  - 이러한 정책의 수단으로 이전의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 인정 태도를 '지방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등 사상적 좌편향 하에서 강제적인 한족의 언어와 문화 습득, 숙청, 노동개조 등이 활용됨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근거 없는 민족 융합에 대한 확신과 민족 모순의 특수성을 중요시 하지 않는 계급 투쟁론에 입각한 사실상의 강제동화 정책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3) 민족융화 정책 시기(1977-1995)
  -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소수민족지역의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소수민족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해짐
  -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민족정책에 있어서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단의 측면에서도 매우 온건한 민족융화정책이 다시 시행됨
  -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에게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 소수민족의 종교 등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정책,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각종 특혜 및 우대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책 등으로 구체화 됨

- 4) 민족동화/융화 양면 정책 시기(1996-)
  - 개혁개방이후 실시되던 유화적인 민족융화정책은 1996년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이 지하운동에서 반 합법 내지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함
  - 1996년에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독립운동 조직 '민족연합혁명전선'의 우루무치에서의 버스 테러와 동년 신장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피습사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동반한 탄압을 진행하는 등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 강력한 한족 동화정책을 시행함
  - 실례로, 원래 존재하던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이 성 정부 급으로의 격상 등을 통한 공권력의 강화와, 2002년부터 시짱 지역에 한족중심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2001년에는 우루무치에서 카슈카르를 잇는 1,500km의 남 신장 철도 개통, 2006년에는 칭짱 철도를 개통시켜서 한족문화의 소수민족 지역의 이입을 가속화함
  -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차원에서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융화정책을 떠나감
  - 실례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31억 6천만 위안을 투입하여 71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짱 지역의 경제 진작에 노력함.
- 나. 향후 전망
  - 향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관련 분쟁에 대해 양면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즉 물리적인 독립 및 분리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히 봉쇄하되, 순응자 및 민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중국은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동반한 탄압을 진행하는 등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 강력한 한족 동화정책을 시행함

국외에 물리적 거점이 있는  
시짱과 신장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됨

유화정책을 펴갈 것임<sup>7)</sup>

○ 실제로 국제 정세의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물리적 독립 및 분리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조직과 결부된 국외 조직에 대한 타격을 목적으로 이들의 지원 세력으로 알려진 탈레반 섬멸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함<sup>8)</sup>

○ 그러나 중국 정부가 현재의 사회경제 정책 기조 즉 불균형 발전 기조를 지속하는 한 사회 전반적인 소득 및 지역격차의 확대 과정에서 소수민족은 그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수민족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판단됨

○ 더구나 국내적으로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중앙아시아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중국에 필요한 만큼 다수가 이슬람 교도인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부담을 느껴서, 이들 지역 내 분리주의 운동 조직 타격에 대해 소극적일 가능성 역시 높음

○ 따라서 국내적인 소수민족 분쟁 가능성의 상존 내지 강화와 국제적인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분쟁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국외에 물리적 거점이 있는 시짱과 신장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됨

#### 4. 결론

##### 가. 중국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

○ 중국 소수민족문제는 중국 국내외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중국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이지만, 언제든지 국제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의미임

○ 이런 측면에서 특히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역사, 문화, 종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국 내 소수민족 분쟁으로 부침을 가질 수 있음

○ 중국은 따라서 국내적인 소수민족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소수민족 문제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만약 소수민족 문제가 국제 및 지역화된다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 레토릭으로 치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패권국 추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중국의 서부 지역 즉 시짱과 신장의 소수민족 문제가 백열화될 가능성이 큰바 중앙 및 서남 아시아와 지역 평화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슬람권 국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및 동일민족이 국가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명구 및 차오셴족 역시 향후 분쟁 발발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 역시 동아시아 지역 평화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한반도에의 함의

○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분쟁화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일

소수민족 문제가 국제 및 지역화된다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 레토릭으로 치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패권국 추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대부분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특성 역시 분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문화, 인종, 역사 등을 가진 국가 혹은 물리적 실체의 존재 여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및 남한의 존재 등으로 차오셴 측은 소수민족 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차오셴족은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 2백만 여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내 13번째 그 수가 많은 소수민족이며, 역사, 문화적으로 그 정체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또한 대부분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특성 역시 분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현재 북한 및 남한과 중국이 간헐적으로 겪고 있는 역사 및 영토 분쟁 역시 이 지역의 갈등 가능성을 높게 만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은 이 지역의 소수민족 분쟁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진흥동북', '동북공정' 등의 예로 봤을 때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차오셴 지역에 대한 중국내 소수민족 분쟁 발생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사회 영역에서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교류 및 정체성의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역사 및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의 공동 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만 함

주 석

- 1) 이 부분은 2009년 9월 27일 발표된 중국 정부의 <中國의民族政策與各民族共同繁榮發展>백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10126896.html>)
- 2) 國家統計局, "地區生產總值," 『中國統計年鑒2008』 ([www.stats.gov.cn/tjsj/ndsj/2008/indexch.htm](http://www.stats.gov.cn/tjsj/ndsj/2008/indexch.htm))
- 3) 이하는 이동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시짱과 신장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중국사회II: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오름, 2004), pp. 301-342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 4) 김영미, "중국, 알 카에다의 '피의 보복' 부른다," 시사IN 97호 (2009. 7.21)([www.sisain.co.kr/news/articleView?dxno=4890](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dxno=4890))
- 5) 박병광, "중국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이회옥, "티베트 자치문제의 지속과 변화: 3-14 사건 분석을 위한 시론," 중국학연구 제45집, 2008.
- 6) 이하의 내용은 박병광(2000), 이회옥(2008)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 7) 주장환, "우루무치 7·5 사건의 성격과 중국정부의 대응전망,"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48호(2009.7.17)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466&c=1&m=8>)
- 8) 김영미, "중국, 알 카에다의 '피의 보복' 부른다," 시사IN 97호(2009. 7.21) ([www.sisain.co.kr/news/articleView?dxno=4890](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dxno=4890))

편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